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집

1 마음을 비추는 글

(01. 문학과 성장)

본책 4~7쪽

- ① 세면대 ②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 ③ 능동적
④ 성취감 ⑤ 의리 ⑥ 자신감 ⑦ 기대고

- 01 ④ 02 ④ 03 ③ 04 (1)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
(2) 머리카락으로 배수구가 막혔기 때문이다. 05 ③ 06 ④
07 ② 08 멍키 스페너 09 ② 10 ② 11 ⑤ 12 ②
13 ② 14 ③

01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나'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가 자신이 겪은 사건과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02 '나'는 한성 설비에 가면 막힌 건 뭐든 뚫어 준다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세면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이라고 느꼈다.

| 오답 풀이 | ① '나'가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팔자 늘어졌다고 한 것에서 틀려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엄마가 집에 있는데 화장실에 물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상황을 일이 점점 꼬이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서 곤란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가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간 날, 자신의 예상과 달리 얼굴 엄청 커 보인다고 한 아이들의 말이 심장을 쿵쿵 찢었다고 한 것에서 상처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수리비 외에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말에 '나'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고 한 것에서 한성 설비의 수리비가 생각보다 비싸 놀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다)에는 '나'가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기대하며 머리를 잘랐으나, 오히려 얼굴이 커 보인다는 친구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고 호들갑을 떨며 다시 머리를 길렀던 경험이 나타나 있다. 이는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말'인 '방귀 편 놔서 성낸다'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엄마가 집을 비우자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용돈까지 생긴 상황으로,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뽕 먹고 알 먹는다'를 떠올릴 수 있다.

② (나)는 물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까지 문제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이므로,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나다'를 뜻하는 '얹힌 데 덮치다'를 떠올릴 수 있다.

④ (라)는 세면대가 고장 난 곤란한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만년 철물점에 찾아가는 상황이므로, '위급한 때를 당

하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지게 됨을 이르는 말'인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를 떠올릴 수 있다.

⑤ (마)에서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나'에게 관리 사무소에서 말을 잘하면 봐 줄지도 모르니 한번 가 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말만 잘해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의 '말로 온 공을 갚는다'를 떠올릴 수 있다.

04 (라)의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서요."라는 말에서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의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고작 머리카락 좀 빼 주는 일이었다.'를 통해 세면대 배수구가 막힌 원인이 머리카락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5 '나'는 평소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 드는 것은 양심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말을 잘해 큰돈을 안 들이고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무실로 걸음을 옮기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

06 내적으로 성숙한 후에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07 (가)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다)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라)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나)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를 빌리고, (마)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 따라서 '(가) - (다) - (라) - (나) - (마)'의 순서로 사건이 진행된다.

08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과 보고, 세면대를 뚫기 위해서 사장님에게 멍키 스페너를 빌렸다.

09 '나'는 지독한 냄새가 나자 한아를 배려하여 나가 있으라고 권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나'의 곁에서 도움을 주려는 한아를 보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

10 '나'는 호기심에 공구를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면대를 뚫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서 빌리려 한 것이다.

11 (나)에서 엄마는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철물점을 오래 오래 하면 좋겠다는 말을 빙 돌려서 경빈이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한다는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다)에서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쿵쿵 찢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호들갑을 떨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3 (라)는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스듬히 받치며 살아감을 말하고 있다.

14 (라)는 서로가 서로를 받쳐 주며 험난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강조한다. ㉠에서도 만년 철물점 주인 할머니가 '나'에게 전구 가는 방법을 알려 주며 도움을 주고 있다.

(02. 진술한글 쓰기)

본책 8~11쪽

- ① 경험 ② 자아 ③ 글감 ④ 조직 ⑤ 고쳐쓰기
⑥ 택배원 ⑦ 산타

- 01 ② 02 ③ 03 운송장 04 ③ 05 ④ 06 ④
07 ⑤ 08 L - ㄱ - ㄴ - ㄷ - ㄹ 09 ⑤ 10 ①
11 ④ 12 ③ 13 산타 14 ③ 15 ④ 16 ②

- 01 이 글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로, 감동을 느꼈거나 깨달음을 얻는 등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변화를 준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단순히 흥미를 위주로 특별한 경험만을 다룬다면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어렵다.
- 02 (라)에서 아빠는 동생들이 산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배달해 주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택배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빠가 동생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03 (나)의 '하루에 200장이나 되는 운송장'이라는 표현에서 아빠가 하루에 배달한 물건의 개수를 알 수 있다. 또한 운송장을 입력하는 '나'의 손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통해 아빠가 고된 하루를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4 (라)에서 아빠는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은 자신보다 받는 사람들에게 더 소중하고 각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아빠는 택배 일을 좀 더 의미 있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 05 '담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에서 '산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전해 주는 아빠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즉, 글쓴이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목을 고쳤다.
- 06 ㉠은 아빠의 하루를 까칠하고 물기 하나 없으며, 괜히 살이 베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표현함으로써, 고된 일을 하는 아빠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07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다. 글쓴이는 글을 쓰면서 경험과 그에 대한 깨달음을 되새기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건강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진솔한 정서를 담은 글을 읽으며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은 거리가 멀다.
- 08 글쓴이는 '인상 깊은 경험을 발견한 단계(L) - 글로 쓸 경험을 구체화한 단계(ㄱ) - 개요를 작성한 단계(ㄴ) -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한 단계(ㄷ) - 완성된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 단계(ㄹ)'를 거쳐 한 편의 글을 완성했을 것이다.

- 09 (나)에서 우산을 가져가라는 '나'의 말을 듣고도, 아빠는 일할 때 우산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우산을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10 (나)의 '아빠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속상했다.'라는 문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빠에 대한 '나'의 속상한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11 ㉡의 빵을 건네는 아빠의 모습에서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이 드러날 뿐,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 | 오답 풀이 |** ①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초여름 날'이라는 구체적인 때를 밝혀 경험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물건을 배송하는 아빠의 모습을 통해 택배원이라는 아빠의 직업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물건이 비에 젖지 않도록 상자를 몸 가까이 바싹 쥔 아빠의 모습에서 아빠가 배송할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아빠의 고된 하루가 묻어 있는 운송장을 말리고 있다.
- 12 (가)와 (나)는 모두 택배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물건을 배달하는 아빠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13 (가)와 (나)에서 글쓴이는 공통적으로 아빠를 '산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14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신에게 보낸 혹은 누군가로부터 온 선물을 전달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아빠가 배달하는 물건을 '선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가)와 달리, (나)는 아빠가 언제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빠와 산타의 다른 점이라며 둘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아빠와 배달을 받는 사람의 통화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아빠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빠에게는 배달해야 하는 물건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며 배달하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달리, (나)는 아빠가 매일 누군가의 산타가 되어 준다는 점에서 아빠의 매일매일을 '12월 25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15 (나)는 (가)에 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추가하여 아빠의 자부심과 아빠가 하는 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지는 않았다.
- 16 고쳐쓰기는 특정한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 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표현하기 다음 단계에서 고쳐쓰기를 일괄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다채로운 단어

(01. 단어의 짜임과 새말)

본책 12~15쪽

- ① 단어 ② 의미 ③ 어근 ④ 접사 ⑤ 파생어
⑥ 새말 ⑦ 첫

- 01 ② 02 ③ 03 ⑤ 04 ① 05 ④ 06 펄펄,
눈, 친구, 노래 07 ⑤ 08 ② 09 ② 10 ⑤
11 (1) 합성어 (2) 풀꽃 12 ④ 13 (1) 돌다리, 구름, 꽃나무
(2) 날달걀, 잔소리 14 ④ 15 ⑤ 16 ② 17 ①
18 ③ 19 ② 20 ④ 21 ① 22 ④ 23 (1) 반려
+ 동물 (2)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 중)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24 ③

- 01 실질 형태소가 모두 자립 형태소인 것은 아니다. ‘먹다’의 ‘먹-’, ‘예쁘다’의 ‘예쁘-’와 같은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나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 02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하늘, 은, 맑-, -고, 바다, 는, 매우, 푸르-, -다’로 나눌 수 있다.
- 03 ‘달아라’에서 ‘-아라’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 04 ‘주먹’은 ‘주’와 ‘먹’으로 나누면 ‘주먹’이라는 단어가 지닌 뜻이 사라지므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이다. ‘봄바람’은 ‘봄’과 ‘바람’으로, ‘머리빗’은 ‘머리’와 ‘빗’으로, ‘첫사랑’은 ‘첫’과 ‘사랑’으로, ‘함박눈’은 ‘함박’과 ‘눈’으로 모두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05 ④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새 / 신 / 을 / 신- / 고 / 두 / 발 / 을 / 구르- / 다’이므로, 형태소는 총 10개이다.
| 오답 풀이 | ① ‘산 / 에 / 들 / 에 / 꽃 / 이 / 피- / -다’로, 형태소는 총 8개이다.
② ‘동생 / 의 / 마음 / 이 / 예쁘- / -다’로, 형태소는 총 6개이다.
③ ‘이 / 책 / 은 / 내용 / 이 / 너무 / 어렵- / -다’로, 형태소는 총 8개이다.
⑤ ‘강아지 / 와 / 고양이 / 의 / 사이 / 가 / 좋- / -다’로, 형태소는 총 8개이다.
- 06 ‘펄펄 내리는 눈을 보며 친구와 노래를 불렀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펄펄 / 내리- / -는 / 눈 / 을 / 보- / -며 / 친구 / 와 / 노래 / 를 / 부르- / -었- / -다’이다. 이때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펄펄, 눈, 친구, 노래’이다.
- 07 ‘눈’, ‘하늘’과 같이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 어근과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 08 <보기>에서 ‘한여름’은 접사 ‘한-’과 어근 ‘여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금도끼’는 어근 ‘금’과 어근 ‘도끼’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 오답 풀이 | ① ‘잔돈’은 접사 ‘잔-’과 어근 ‘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날고기’는 접사 ‘날-’과 어근 ‘고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먹구름’은 접사 ‘먹-’과 어근 ‘구름’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방귀쟁이’는 어근 ‘방귀’와 접사 ‘-쟁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09 ‘울보’의 ‘-보’는 어근 뒤에 붙어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이다.
- | 오답 풀이 | ① ‘맨발’의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③ ‘헛수고’의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④ ‘애호박’의 ‘애-’는 ‘어린’ 또는 ‘작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⑤ ‘새하얗다’의 ‘새-’는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10 ‘소리꾼(소리 + -꾼)’, ‘개살구(개 + -살구)’, ‘햇사과(햇 + -사과)’, ‘바느질(바늘 + -질)’은 모두 자립 형태소인 어근과 의존 형태소인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11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이고, 제시된 단어 중에서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은 ‘풀꽃(풀 + 꽃)’이다. ‘사랑’은 단일어, ‘늦가을(늦 + 가을)’, ‘굵개(굵 + -개)’, ‘먹보(먹 + -보)’는 파생어이다.
- 12 ‘잔기침’은 ‘가늘고 작은’의 뜻을 더하는 접사 ‘잔-’과 어근 ‘기침’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 오답 풀이 | ① ‘목감기’는 어근 ‘목’과 어근 ‘감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걸렸는지’에서 ‘-는지’는 홀로 쓰일 수 없으나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조사가 아니므로, 단어가 아니다.
③ ‘아침’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계속’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므로 어근, 즉 실질 형태소가 하나인 단일어이다. ‘나온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나오 + -ㄴ - + -다’로, 실질 형태소 1개와 형식 형태소 2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13 ‘구름’은 어근 하나로, ‘돌다리(돌 + 다리)’, ‘꽃나무(꽃 + 나무)’는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날달걀(날 + 달걀)’, ‘잔소리(잔 + 소리)’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14 ‘맨몸(맨 + 몸)’과 ‘장난꾸러기(장난 + -꾸러기)’는 모두 파생어이다.
- | 오답 풀이 | ① ‘갈매기’는 단일어이고, ‘옷장(옷 + 장)’은 합성어이다.

- ② '행복'은 단어이고, '욕심쟁이(욕심 + -쟁이)'는 파생어이다.
 ③ '발길질(발길 + -질)'은 파생어이고, '사냥터(사냥 + 터)'는 합성어이다.
 ⑤ '불고기(불 + 고기)'는 합성어이고, '찰옥수수(찰- + 옥수수)'는 파생어이다.

15 '먹었다'를 형태소를 분석하면 '먹- + -었- + -다'이므로, 총 3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6 '군소리'는 접사 '군-'과 어근 '소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물방울'은 어근 '물'과 어근 '방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헛걸음'은 접사 '헛-'과 어근 '걸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바구니'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맞장구'는 접사 '맞-'과 어근 '장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7 '나는 생일에 선물로 곰인형을 받았다.'에는 단어인 '나', '생일', '선물', '받다(받-)'와 합성어인 '곰인형(곰 + 인형)'만 쓰였다.
| 오답 풀이 | ② '갑쟁이'는 '갑(어근) + -쟁이(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③ '햇과일'은 '햇-(접사) + 과일(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④ '헛수고'는 '헛-(접사) + 수고(어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⑤ '말썰꾸러기'는 '말썰(어근) + -꾸러기(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8 '이리저리'는 어근 '이리'와 어근 '저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뒹개'는 어근 '뒹-'과 접사 '-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② '비바람'은 어근 '비'와 어근 '바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④ '밤고구마'는 어근 '밤'과 어근 '고구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요술쟁이'는 어근 '요술'과 접사 '-쟁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19 ㉠은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에'와 '이'이다.

20 '버카'는 '버스 카드'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21 <보기>는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새말은 '친추(친구 추가)'이다.
| 오답 풀이 | ② '네티켓(네트워크 + 에티켓)'은 단어의 일부를 따서 만든 새말이다.
 ③ '누리꾼'은 어근 '누리'와 접사 '-꾼'을 결합하여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④ '그림말'은 어근 '그림'과 어근 '말'을 결합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⑤ '디지털화'는 어근 '디지털(digital)'과 접사 '-화(化)'를 결합하여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22 '반짝세일'은 어근 '반짝'과 어근 '세일'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③ '아점(아침 + 점심)',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은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② '봉세권(봉어빵 + 역세권)'은 단어의 일부를 결합한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⑤ '캥거루족(캥거루 + -족(族))'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새말이다.

23 '반려동물'은 어근 '반려'와 어근 '동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즉,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과 같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24 '멋글씨'는 낱선 외국어인 '캘리그래피'의 정확한 뜻을 잘 살려서 다듬은 말이다.

(02. 어휘의 양상과 쓰임)

본책 16~19쪽

- ① 줄임말 ② 한자어 ③ 전문어 ④ 효율성
 ⑤ 간편 ⑥ 그림말

- 01 ① 02 ③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7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 주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08 ③ 09 ⑤ 10 ⑤ 11 ④
 12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13 ㉠은 빠르고 쉽게(간편하게) 쓰기 위한 것이고, ㉡는 재미있게 표현하려는 것이다.
 14 ④ 15 ③ 16 ③

01 (가), (나)는 세대별로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다)는 매체에 따른 인터넷 언어의 사용 양상을, (라)는 분야에 따른 전문어의 쓰임을 보여 준다. 이처럼 어휘는 세대·분야·매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쓰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라)는 법률 분야의 어휘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분야에 따른 어휘의 차이가 세대별 어휘의 차이보다 큰지는 알 수 없다.
 ③ 매체에 따른 어휘와 분야에 따른 어휘는 서로 관련이 없다.
 ④ (가), (나)는 서로 다른 세대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다)와 같은 인터넷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고, (라)와 같은 전문어는 해당 분야 외의 일반인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분야·매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⑤ 같은 세대라도 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다.

- 02 청소년들은 ‘볼매(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처럼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많이 사용한다(ㄱ). 이러한 청소년층 어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ㄴ).

| 오답 풀이 | ㄴ, ㄹ. 우리말과 외국어를 결합하거나 신조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층 어휘의 특징이다.

ㄷ. 기성세대는 ‘별고’, ‘무료하다’와 같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한자어를 쉽게 풀어서 쓴다고 보기 어렵다.

- 03 (가)는 기성세대의 어휘를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⑤의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生)’이 결합하여 ‘모범적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새말로, 기성세대의 어휘가 아니라 청소년층 어휘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심심(甚深)하다’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의미이다.

② ‘강녕(康寧)하다’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의미이다.

③ ‘고별’은 감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기성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④ ‘백부(伯父)’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의미한다.

- 04 (다)에서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동영상 언어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형~’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조아?’, ‘보고시퍼’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적고 있다.

③ ‘시간 순삭!’, ‘왜케’와 같이 의도적으로 글자를 줄여서 표현하고 있다.

④ ‘나 1도 안 보고 싶은 줄!’과 같이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써서 표현하고 있다.

- 05 (라)에서는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의 집주인과 같이 해당 분야 외의 일반인은 전문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6 (라)에 제시된 법률 용어와 같은 전문어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대화 상대에 따라 전문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07 ㉠은 사진, ㉡은 동영상, ㉢은 그림말이다. 인터넷 언어에서 이러한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언어의 일부로 활용하면 언어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08 <보기>에서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말로, 청소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이때 세대별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 상대방이 ‘생선’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 09 이 글에서는 세대별로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로 사용하는 어휘를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다른 세대의 어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10 ㉠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로, 간편하게 쓰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줄임말은 같은 음절을 반복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11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말로,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해당 분야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전문어는 학술회나 세미나 등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② 전문어는 주로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자어가 외국어나 외래어보다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외부에 알려지면 다른 말로 바꾸어 쓰는 특성을 지닌 것은 은어로, 은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이다.

⑤ 전문어는 하나의 어휘가 하나의 뜻을 지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2 전문어는 대상이나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표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기를 중계할 때 전문어를 사용하면 기술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13 ㉠의 ‘맛집’은 ‘맛있는 점심’의 줄임말이고, ‘궁까’는 ‘그러니까’를 의도적으로 글자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며, ‘머꼬시퍼’는 ‘먹고 싶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으로, 모두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쓴 것이다. 반면 ㉡의 ‘내맘RG’, ‘4랑해’는 영문자나 숫자를 이용하여 글자를 바꾸어 써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 14 ‘세젤레’, ‘ㅇㅈ(인정)’처럼 글자를 줄여서 표현하거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글자를 입력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다. 또한 ‘헉!’, ‘절레절레’와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거나 ‘제에에에발’과 같이 음절을 반복하면 실제 말하는 것처럼 글자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15 하준은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학교 누리집에 건의 사항을 게시한다는 공적인 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건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예의를 지키며 글을 썼다.

- 16 윤서가 쓴 댓글의 문제점은 다른 사람이 댓글에 사용된 인터넷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소통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인터넷 언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삶을 가꾸는 글의 힘

(01. 추론하며 읽기)

본책 20~23쪽

- ① 의도 ② 배경지식 ③ 잔소리 ④ 창의적
⑤ 긍정적 ⑥ 갈색 지방

01 ②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발을 디
딜 때마다 소리가 나는 피아노 모양의 계단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07 ③
08 ⑤ 09 기존의 해결 방법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0 ⑤
11 ① 12 ⑤ 13 ③ 14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고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안 차갑게 유지한다. 15 ②

01 추론하며 읽기는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글에 제시된 정
보 등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짐작하
며 글을 읽는 것이다. 따라서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의도나 관
점을 정리하는 것은 추론하며 읽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02 담벼락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은 평소에 길을 걷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즉 글쓴이는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글의 처음에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03 넋지 효과는 규제나 감시 대신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넋지 효과가 강제적 수단의 단점
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4 이 글에 제시된 '담벼락 화단'과 '피아노 계단'은 모두 넋지 효
과를 활용한 사례로, 작은 자극으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④는 글에 제시된 사례
를 바탕으로 '은근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추론하고 있으므
로,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등굣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골목길을 본 경험
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다.

② '인상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맥락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다.

③ 공익 캠페인의 주제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
고 있다.

⑤ 캔 모양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참여율이 높아졌
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다.

05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
의 글이라도 서로 다르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추론
하며 읽을 때 글쓴이가 의도한 대로 글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발
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는 피아노 모양의 계단을 설치하였
다. 이처럼 넋지 효과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
화를 이끌어 내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7 ㉠'화단', ㉡'피아노 계단'은 모두 넋지 효과를 이용한 사례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에 해당한다.

08 노면 색깔 유도선은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운전자가 경로를
헛갈리지 않고 한눈에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넋지
효과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09 ㉠에서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는 기존
의 해결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을 통해 기존의 해결 방법에서 벗어나 넋지 효과를 활용한
해결 방법처럼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10 곡선 구간의 중심부까지 점점 간격을 좁혀 그린 흰색 가로선
은 운전자가 곡선 구간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보다 속도감을 더 빠르게 느끼고 스스로 속
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즉, ㉡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1 ㉡에서 '잔소리'는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기존의 해결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
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잔소리'에 해당하는 기존의 해결 방법이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어렵게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2 (마)는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서
술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 결과를 제
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몸속 갈색 지방을 늘리는 방법에 대
한 연구는 기존부터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갈색 지방은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
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은 점점 줄어
든다고 하였다.

14 (마)에서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고 몸의 온도를 일정 시간 동
안 차갑게 유지하면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을 늘리는 데에 도
움이 된다고 하였다.

15 (가)에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대부분 백색 지방이라고 하였
으며, (나)에서 상대적으로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은 것
난아이들의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은 약 5퍼센트라고 하였다.
따라서 몸속 갈색 지방의 비율이 백색 지방의 비율보다 높기
는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2. 주장하는 글 쓰기)

본책 24~27쪽

- ① 근거 ② 조직 ③ 표현 ④ 주장 ⑤ 의존
⑥ 중간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① 06 (마), 자료의 내용이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07 ② 08 ② 09 ④ 10 ⑤ 11 ③ 12 ⑤

13 '어떤 사람들'은 대상을 불분명하게 나타내는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는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으로 고쳐 쓴 것이다. 14 ④

01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가)~(마)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주장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성해야 한다.

02 (다)에서는 엠비티아이 검사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검사 당시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엠비티아이 검사를 전문가에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3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수집한 자료가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내용이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지는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04 (나)는 인터넷상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엠비티아이 검사 사이트의 관계자를 인터뷰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따라서 (나)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중간'의 성격에 해당하는 학생 ㉗과 학생 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엠비티아이 검사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③, ④ (다), (라)는 모두 관련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의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다.

⑤ (마)는 공공 기간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의 글이므로,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하다.

05 주어진 개요의 '서론'에는 성격 유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과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론'에 (마)를 활용하여 엠비티아이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마)는 엠비티아이를 기업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07 (가)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논란이 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8 이 글은 엠비티아이 검사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고 (ㄱ), 신뢰도가 떨어지는 엠비티아이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ㄷ)는 점을 근거로 들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ㄴ. 엠비티아이 검사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였다.

ㄷ. 엠비티아이 검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9 이 글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맹신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엠비티아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글쓴이는 엠비티아이와 같은 성격 유형은 개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므로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가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진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가)는 주장하는 글의 '서론'에 해당한다.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본론'이다.

11 (마)에 <보기>를 추가하면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다.

12 ㉘은 엠비티아이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결론'에서 다시 강조한 것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13 주장하는 글에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대상을 불분명하게 나타내는 모호한 표현 대신 대상을 '청소년들'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14 ㉘는 <보기>에서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독자의 흥미를 끌고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지는 않다.

4 소통하며 이해하는 삶

(01. 매체와 생활)

본책 28~31쪽

- ① 영상 ② 전문 ③ 대중 ④ 개인 ⑤ 쌍방향
⑥ 정보 ⑦ 비판적

- 01 ② 02 ⑤ 03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
향으로 전달한다. /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04 ④ 05 ① 06 ③ 07 인터넷이 확산되고 스마트폰
이 보편화되었다. /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었다.
08 ⑤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매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01 제시된 만화에서 대중매체의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대중매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유형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④ (다)에서 제작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측면에서 대중매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02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전달 매체로 대중매체의 기능을 하는 것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이다. 텔레비전은 영상 매체로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속한다.
- 03 <보기>에서 뉴스와 드라마의 수용자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매체 자료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 04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매체로(ㄴ), 많은 자본을 들여 하나의 매체 자료를 만든다(ㄷ).
| 오답 풀이 | 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이다.
ㄹ. 대중매체는 완성된 매체 자료를 수많은 수용자에게 빠르게 전달한다.
- 05 대중매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업 및 협업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 오답 풀이 | ② 대중매체는 매체 자료의 기획, 제작, 편집 등의 과정을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나누어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제작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중매체는 전문 장비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을 지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매체 자료의 제작에 참여한다.
④ 대중매체는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므로, 수용자가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대중매체는 대중을 대상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반면에,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

- 06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기획부터 진행, 촬영, 편집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인이 직접 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방송이다.
- 07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누구나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개인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었다.
- 08 '개인 인터넷 방송 제작자 한 명 한 명이 곧 방송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말에서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이 매체 자료의 생산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ㄷ). 또한 여행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개인 인터넷 방송을 공유해 주려는 모습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은 주제에 관심 있는 일부 대상을 중심으로 매체 자료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ㄹ).
- 09 ㉠은 여행지에서 영상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한 답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매체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10 대중매체는 주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매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만, 개인 인터넷 방송은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실시간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다.
- 11 (나)에서 대중매체가 개인 인터넷 방송보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모든 정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 12 매체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여하여 여론을 이끌어 내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대신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 13 <보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기사문의 내용보다 제목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보기>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멧돼지가 출몰하여 농작물을 해집어 놓은 사건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보기>에서 선정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4 매체는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는 객관적 사실과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2. 존중하는 언어생활)

본책 32~35쪽

- ① 상처 ② 가해자 ③ 확산 ④ 존중 ⑤ 해결
⑥ 나 ⑦ 기대

- 01 ② 02 ② 03 ⑤ 04 ① 05 ④ 06 친구 간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갈등을 악화시킨다. 07 ⑤
08 ③ 09 ⑤ 10 ④ 11 ③ 12 ③ 13 나는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지우개를 빌려 가서 당황했어. 앞으로는 내 물건을 빌리기 전에 미리 말을 해 주면 좋겠어. 14 ④

01 이 글에서는 선이 아니라 보라 무리가 폭력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보라 무리를 꾸짖는 것을 통해 (나)의 낙서를 한 범인이 보라 무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보라는 친구들을 주도하여 선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색연필을 돌려받았다.

④ (가)에서 지아는 보라 무리와 함께 선을 따돌리기 위해 선에게 주었던 색연필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⑤ (가)에서 선은 보라 무리와 같은 색의 매니큐어를 바른 지아의 손톱을 보고 속상해하고 있다.

02 (나)에서 칠판에 적힌 낙서를 보고 충격에 휩싸인 선과 선에게 “너네 아빠 진짜 알코올 중독자냐?”라고 묻는 아이 1의 모습을 통해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ㄱ),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ㄷ)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억울해하는 지아의 모습에서 언어폭력이 가해자의 인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ㄷ)을 알 수 있다.

03 [A]는 반 친구 모두가 볼 수 있는 칠판에 공개적으로 선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선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친구 사이에 악의 없이 장난으로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언어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04 ㉠은 색연필 두 개가 어디 있냐는 보라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② ㉡은 선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③, ④ ㉢과 ㉣은 선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모욕적으로 내뱉고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⑤ 선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05 (나)에서 선이 지아의 거짓말을 친구들 앞에서 폭로하고 있을 뿐, 이 글에서 지아가 선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지아가 선에게 왕따라고 말한 것을 통해 선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에서 은주, 재윤, 태연은 지아의 말을 듣지 않고, 지아가 금을 뺐었다며 모함하고 있다.

③ (나)에서 선의 말을 통해 지아가 예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는 지아가 선에게, (나)에서는 선이 지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06 (가)와 (나)에서 선과 지아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크게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친구 간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친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여 결국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상처를 받고 떠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07 (다)에서 지아는 금을 뺐지 않았는데도 여러 명이 금을 뺐었다고 몰아붙이자 억울해하고 있다.

08 ㉠에서 지아는 선이 왕따라는 편견을 가지고 선을 차별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09 갈등 관계에서 화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이 청소년 중 온라인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고 했을 뿐, 온라인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만 문제가 된다고 하지는 않았다.

11 대화방에서 줄임말이나 새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어휘의 특성일 뿐,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12 ㉠에서 말이 ‘유리 파편’처럼 상대의 가슴에 꽂힌다는 표현은 신체에 해를 끼치는 물리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말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13 ‘나 전달법’은 자신이 문제라고 인식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자신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밝히는 것이다. <보기>에서는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지우개를 빌려간 문제 상황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과 다음부터는 말을 하고 물건을 빌리면 좋겠다는 기대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드러내야 한다.

14 ㉠은 ‘너 전달법’을 가리킨다. 반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 전달법’이다.

문해력을 높이는 문제집

1 마음을 비추는 글

(01. 문학과 성장)

본책 39쪽

- 01 ㉠ 02 ㉡ 03 ㉢ 04 붙다 05 성찰하다
06 혈령하다 07 ㉣ 08 ㉤ 09 ㉥ 10 한산했다
11 청얼대며 12 반성하는

- 01 '오기'는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나는 친구와의 팔씨름에 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오기를 부렸다.'와 같이 쓰인다.
- 04 '붓다'는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다.
- 06 '어정쩡하다'는 '얼떨떨하고 난처하다.'라는 뜻이다.
- 11 제시된 문장은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갖기 위해 엄마에게 떼를 썼다는 맥락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못마땅하여 짜증을 내며 자꾸 중얼거리거나 보채다.'라는 뜻의 '청얼대며'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맥락으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다.'라는 뜻의 '반성하는'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진솔한 글 쓰기)

본책 41쪽

- 01 ㉦ 02 ㉧ 03 ㉨ 04 글감 05 존경심
06 정서 07 ㉩ 08 ㉪ 09 ㉫ 10 각별한
11 경험 12 진솔하게

- 01 '용량'은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뜻으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용량이 부족해져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와 같이 쓰인다.
- 04 '개요'는 '간결하게 추려 낸 주요 내용.'이라는 뜻이다.
- 06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라는 뜻이다.
- 10 제시된 문장은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신경을 쓰며 주의를 기울였다는 맥락으로,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이 집이나 자세 등이 유달리 특별하다.'라는 뜻의 '각별한'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니 칭찬을 받았다는 맥락으로, '진실하고 솔직하다.'라는 뜻의 '진솔하게'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2 다채로운 단어

(01. 단어의 짜임과 새말)

본책 43쪽

- 01 ㉬ 02 ㉭ 03 ㉮ 04 파생 05 자립
06 실질적 07 ㉯ 08 ㉰ 09 ㉱ 10 제한하고
11 순화하기 12 다채로운

- 09 제시된 문장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때, 그 음식이 처음 가지고 있던 고유한 맛이나 특징적인 맛을 잃게 된다는 맥락으로, '사물이나 사실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이라는 뜻의 '본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0 제시된 문장은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의 수를 정해 두고 있다는 맥락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의 '제한하고'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1 제시된 문장은 청소년의 언어를 바르게 가꾸기 위해서는 방 송국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맥락으로,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다.'라는 뜻의 '순화하기'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새로 생긴 복합 문화 공간에 볼거리와 체험 활동이 많았다는 맥락으로,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등이 한데 어울리어 호화스럽다.'라는 뜻의 '다채로운'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어휘의 양상과 쓰임)

본책 45쪽

- 01 ㉲ 02 ㉳ 03 ㉴ 04 단절 05 원활하다
06 세대 07 ㉵ 08 ㉶ 09 ㉷ 10 가웃거리며
11 효율성 12 스스럼없이

- 04 '소외'는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이라는 뜻이다.
- 05 '유창하다'는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이 물 흐르듯이 거침이 없다.'라는 뜻이다.
- 06 '시대'는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 또는 '지금 있는 그 시기.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기.'라는 뜻이다.
- 11 제시된 문장은 동아리 운영을 더욱 능률적으로 만들고 일의 성과를 높이하고자 역할을 다시 나누었다는 맥락으로,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라는 뜻의 '효율성'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 12 제시된 문장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대화하며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는 맥락으로, '조심스럽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의 '스스럼없이'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3 삶을 가꾸는 글의 힘

(01. 추론하며 읽기)

본책 47쪽

- 01 ㉠ 02 ㉡ 03 ㉢ 04 추론 05 단속
06 분기점 07 ㉠ 08 ㉡ 09 ㉢ 10 자발적
11 유도할 12 의도

- 04 '개론'은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함.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다.
05 '규제'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는 뜻이다.
06 '일대'는 '일정한 범위의 어느 지역 전부.'라는 뜻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각 동아리에서 알아서 준비했다는 맥락이므로,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자기 스스로 나아가 행하는 것.'이라는 뜻의 '자발적'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문장은 시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이끈다는 맥락이므로,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뜻의 '유도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소설 속 주인공의 독백을 통해 제시한다는 맥락이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이라는 뜻의 '의도'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주장하는 글 쓰기)

본책 49쪽

- 01 ㉡ 02 ㉢ 03 ㉠ 04 내향 05 신뢰도
06 망신하다 07 ㉡ 08 ㉢ 09 ㉠ 10 인위적
11 적성 12 타당한

- 04 '외향'은 '마음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타남.'이라는 뜻이다.
05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이라는 뜻이다.
06 '의존하다'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다.'라는 뜻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강물의 흐름을 사람의 힘으로 바꾼다는 맥락이므로,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의 '인위적'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문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한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이라는 뜻의 '적성'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모두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이라는 맥락이므로,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라는 뜻의 '타당하다'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4 소통하며 이해하는 삶

(01. 매체와 생활)

본책 51쪽

- 01 ㉠ 02 ㉢ 03 ㉡ 04 소통하다 05 전수하다
06 자본 07 ㉡ 08 ㉢ 09 ㉠ 10 유도하였다
11 규제 12 수동적

- 03 '영향력'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라는 뜻으로 '대형 할인 매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통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와 같이 쓰인다.
04 '공유하다'는 '정보나 의견, 감정 등을 나누다.'라는 뜻이다.
06 '기획'은 '일을 꾀하여 계획함.'이라는 뜻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선생님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끌었다는 맥락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뜻의 '유도하였다'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문장은 이 지역은 건물을 너무 높이 짓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해 두었다는 맥락으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는 뜻의 '규제'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존중하는 언어생활)

본책 53쪽

- 01 ㉢ 02 ㉠ 03 ㉡ 04 비방하다 05 악의적
06 황당하다 07 ㉠ 08 ㉢ 09 ㉡ 10 호소하며
11 처지 12 자기중심적

- 04 '악화되다'는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뀌다.'라는 뜻이다.
05 '이타적'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07 제시된 문장은 두 대표가 조금씩 양보하여 큰 갈등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맥락으로,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라는 뜻의 '원만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문장은 그가 처한 형편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는 맥락으로,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이라는 뜻의 '처지'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남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뜻의 '자기중심적'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